

# 지곡동 안정적 오수처리 기반 마련

### 군산 지곡동 주거지역 일대, 하루 4000톤 처리 용량 '단계 맨홀 펌프장' 설치 사업 완료

군산시 지곡동 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공급에 따른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단계 맨홀 펌프장 설치사업이 2024년 12월에 완료됐다. 지난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곡동 주거지역은 기존 공동주택 및 주변 상가, 학교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1개소의 맨홀 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펌프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오수 처리 시설 필요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지곡동 일원의 오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8월에는 환경청으로부터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는 시비를 선투자해 펌프장과 하수관로 설치에 나섰다. 이어 공동주택 건설 시 원안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곡동 일대에 4,000톤/day 용량의 맨홀펌프장 설치를 위한 1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공사는 총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사업은 2024년 12월에 준공됐다.

시는 이번 1단계 맨홀펌프장 설치 사업의 준공을 통해 지곡동 주거지역의 오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지곡동 주

거지역의 안정적인 오수 처리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맨홀 펌프장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강의식 수도사업소장은 "지곡동 일원의 주거지역은 택지개발지구라 아니라서 기반 시설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파트 개발사업자와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가 먼저 선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자들의 원안자부담금으로 추가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도 행정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의회, 본격 소통행보 시동

### "시민·언론인·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의회 만들 것"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신년을 맞아 공무원·공무직 노조 및 시 출입기자단을 방문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일 군산시의회 사무실을 시작으로 김우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의원들은 공무원·공무직 노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출입기자단을 방문,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의회와 언론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언론인과의 접촉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일신월이(日新月異)'의 마음

가짐을 가지고 시의회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무원, 언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군산시의회는 향후 시민,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공무원과 기자단에서 건의한 본회의장 집행부 간부공무원 배석도 국·소·과장에서 국·소·장과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 내용과 관련된 과장만 배석하는 것으로 변경, 6일 제27회 임시회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통 강화 행보는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2025년 읍면동 신년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겨울방학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 나서

### 아동돌봄기관 총 64곳 돌봄서비스 강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개소·지역아동센터 무상급식 등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 최소화해 아동이 행복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초등학교 겨울방학인 오는 2월까지 아동돌봄기관 총 64개소의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익산시 아동돌봄기관은 △지역아동센터 4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9개소 △우리마을돌봄 6개소 △공공육아나눔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돌봄기관은 방과후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학습지원, 독서·숙제지도, 급·간식 제공 등의 전반적인 돌봄을 수행한다.

방학 중에는 특별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돌봄기관 확대와 예산 지원에도 힘썼다.

점차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마동 풍경채어바니터와 모현동 두루리에 각각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 9호점을 개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는 4억 5,600만 원의 급식예산을

지원해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무상 제공한다. 그간 방학중 급식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무상 급식 제공으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동 돌봄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지역 경제 견인할 '우수향토기업' 4곳 선정

### 대성종합포장·두영기전·은성식품·태광... 중기육성자금 이자 지원·가점 부여 등 혜택

익산시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우수향토기업 육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우수향토기업 4곳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향토기업은 △대성종합포장(대표 장병진) △두영기전 주식회사(대표 이명준) △주식회사 은성식품(대표 김형규) △주식회사 태광(대표 정진욱)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환관이

증정되고, 인증기간인 5년(2025~2029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과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2015년부터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을 선정한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돼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익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새로운 변화의 첫 단추가 될 것"

###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취임

2025년 새해, 김영민 군산시 신임 부시장이 부임하면서, 군산시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했다.

김영민 신임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2일 취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2025년 군산의 새로운 변화의 첫 단추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임실 출생으로, 1992년 공직에 입문했다. 2019년 전라북도 생활체육대추전추진단장, 농업정책과장, 임실군 부군수,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공공행정 베테랑이다.

김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의 경제수도이자 가장 역동적인 도시 군산에서 부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9급 공직자로 시작해 35년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을 군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



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흔들림 없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추진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통한

단단한 행정조직 구성 △시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갖는 여건 조성으로 시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는 시정 구현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군산시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변화의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취임식 후 김 부시장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소별로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보고를 받고, 2월까지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시민 체감 현장행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2025년 임대농업 기계 임대료 50% 감면 진행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이어간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곳에서 보유 중인 모든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5,000여 농업인이 혜택을 보고,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영농경쟁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인공지능 확산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선정

익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요 맞춤형 농기계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확산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와 (주)와이엘 등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으로 협력업체 7곳이 참여 자율제조 기반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자율제조"는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기계의 다품종 유연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기계 자율 제조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실수요자에게 개별적으로 맞는 농기계를 유연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